

고문과 순교보다 더 중요한 미션을 부탁한 베드로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후서-

이사야 34:16, 베드로후서 1:5-10

정윤돈 목사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지정을 주시사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 죄,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천만 제자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선교의 미션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짝이 맞지 않게 편협하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복음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편집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그리스도와 전도의 관점으로 볼 때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도록 속여서 인간들을 타락시켰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선입견을 버리고 겸손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하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한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순종과 복종을 먼저 배우는 곳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영혼, 가정 속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문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복음적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미션을 발견하고자 한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기록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중간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장막은 집을 의미할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을 뜻한다. ‘죽음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라고 기록한 것이다. 베드로는 복음을 알고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충만을 받은 후,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에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거듭난 모델적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였다. 여러분도 이 요한 복음 3장 3절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도 복음 듣기 전과 후를 체험해야 한다.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순교하기 직전에 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복음을 알고 성령충만하여 약 30년 만에 복음과 성경적인 진리를 아는 지식이나 인격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지만 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 안에는 아직 많은 교리적인 문제와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

하는 것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리와 성경을 지키고 성도들의 거룩성을 지키고 그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저 모습이구나’하고 삶 속에서 전도를 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길고도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죽기 전에 요구했던 것이다. 여러분도 이러한 미션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거듭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무언가 다르구나’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메시지를 듣고도 안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완전히 타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편집했기 때문이다.

1. 그래서 오늘도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노기로 하겠다.

(1)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당시에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교묘히 속여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과 이단들이 있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도 다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직접 주님의 능력을 친히 목격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목격하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직접 들었던 장본인이었다. 그 내용을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다.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오염시켰다. 그러니까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단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언제든 재림하실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

(2) 두 번째 문제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경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있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예언들을 왜곡해왔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전체를 통하여 이단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겠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 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최근에 한국에는 이만희가 주도하는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과 성경을 사사로이 틀리게 왜곡하여 많은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이만희는 젊은 시절 전도관에 1957년에 입교하였고 장막성전 등 이단집단에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복사하여 지금의 신천지를 만든 사람이다. 이러한 이단에게 빠지지 않도록 성도를 지키는 것이 고문을 참는 것보다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정확히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복음, 전도, 선교, 거룩과 사랑을 절대 목표로 하여야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3)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보겠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궁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들은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다. 그래서 이들은 ‘밥 먹자, 술 먹자, 놀러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한다. 또한 염려, 걱정, 비탄,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그 방법들은 위사람과 상관들을 밀치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돌하여 예의가 없고 인사도 잘하지 않다. 자화자찬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모른다.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리더자를 비방한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악하거나 구부러지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을 고치는 방법이 강단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지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포함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이 강단메시지의 제자이다.

(4) 그런데 오늘날의 더 큰 문제는 성도들과 미래의 지도자들이 될 램넌트들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nothing이었으나 everything으로 만들었다. 한 사람이면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후대들이 되기를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현장을 변화시켰다. 결국 인생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응답을 받았다. 즉 문제 중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캐릭터가 없는 것이고 램넌트들이 미래의 램넌트 지도자다운 캐릭터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을 참사랑 RUTC 시스템에서 한 가지씩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교단 총회와 전도협회에서는 62가지 전도자의 삶과 OMC, RUTC,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다.

2. 이렇게 성경과 진리를 약용하는 이단들과 사탄에게 속아 부도덕한 행위로 성도들과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후대들을 그리스도인답고, 램넌트 리더다운 캐릭터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이를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미션을 주고 있다. 이 미션들은 RUTC시스템 안에 세팅을 해야 하는 영적컨텐츠이다.

(1) 베드로 사도는 영적성장의 8단계를 미션으로 주셨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이 8단계를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5절에서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의미한다.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인데 이는 탁월함, 뛰어난함을 의미한다. 덕에 ‘지식’을 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지식이라는 단어인 ‘그노시스’는 ‘에피스테메’(이해, 지식)와 관련되어 있고 이는 지식 자체보다는 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행위는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보고 듣고 조사하고 경험함으로써 말미암아 아는 모든 인식과 방식을 통한 진정한 이해를 의미한다. 전도와 복음도 6가지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을 변화시킨 체험이 있는 그 지식과 이야기로 들은 지식은 다르다.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지식인 것이다. 이 지식이 있으면 사람은 들뜰 수 있다. 그래서 6절에는 지식에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다. 절제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self-control’이고 헬라어로는 ‘엔크라테이아’이다. 스토아학파에서는 충동, 특히 성적 충동과 음식과 음주의 향락을 삼가는 것은 참된 인간이 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의 도리로 보았다. 다음은 ‘인내’이다. 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건고히 섬, 확고부동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의미는 ‘기대, 기다림’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끝까지 참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인내에 ‘경건’이라고 했다. 경건의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이’이다. 그 뜻은 신앙심 깊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지한 태도를 의미한다. 7절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이다. 이는 ‘형제와 성도에 대한 사랑, 형제애’를 의미한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로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의 사랑을 의미한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는 질문했을 때 끝까지 나는 주님을 ‘필레오’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서는 성도들도 서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믿음에서 아가페까지가 서밋컨텐츠의 8단계이다.

(2)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인격은 결국 신의 성품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베드로는 미션을 주고 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3)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이것(재림)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4) 또 베드로후서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라라고 미션을 주셨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겠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이다’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구절이다.

(5)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미션을 주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언제 지나갈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그날과 그때도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 자신과 교회와 후대를 복음 안에서 온전히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오늘도 베드로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언약은 베드로처럼 고문과 순교보다 더 무서운 이단과 세상정욕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 5000 종족 중에서 베드로와 같이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난 영적인 리더를 찾아내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24시간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단과 세상정욕과 사탄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후대를 통해 천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지금 현장에 있는 문제를 두고 강단메시지에 조금만 집중한다면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고 확신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먼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갱신해야 할 미션도 적어보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친히 거듭나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생명, 예수 능력으로 충만하여 우리교회를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교회’로 세우는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길 자들이 되기를 축원 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팬데믹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군천사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위기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영육간의 응답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잘못된 성경적인 내용과 잘못된 삶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영적 리더들, 램넌트 리더들, 성도들, 중직자, 교역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